한 눈으로 보는 경제

5일

코스피지수	2085.26 ▲	+25.93
코스닥지수	650.19 ▲	+8.46
日 닛케이 지수	2만1329.12 ▲	+229.06
中 상하이 종합	3071.68 ▲	+60.01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05 ▲	+0.02
환율 (원·달러)	1181.20 ▼	-6.60
국내금값 (원/그램 g)	6만2402.40 ▲	+105.16

강원랜드, 대구·경북에 성금 3억 기탁

강원랜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고생하는 대구·경북지역의 감염병 확산방지와 자가격리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쓰도록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대표 송필호)에 3억 원을 기탁한다. 성금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구입이 어려운 대구지역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방역용품을 보급하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현장 의료진을 위한 방역키트, 자가격리자를 위한 생필품키트 구입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강원랜드 임직원들도 13일까지 모바일을 통한 전자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핀에어, 부산 취항 7월로 연기

핀에어(한국지사장 김동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31일로 예정했던 부산 취항을 7월 2일로 연기하고 기존 서울-헬싱키 노선도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휴한다. 핀에어는 운휴 기간에 예약한 승객에게 개별 연락해 일정을 변경하거나 환불 조치를 도울 예정이다. 서울 노선은 6월 말까지, 부산 노선은 9월 말까지 날짜 변경이 가능하며 항공권 취소를 원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전화(02-730-0067, 내선 1번, 월-금 오전 9시-6시)로 하면 된다.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경우 해당 여행사를 통해 처리 가능하다. 김재범 기자

전국 유치원·학교 개학 연기…우리 아이 공부 어떻게 할까

"코로나 걱정? 홈스쿨링 있잖아"

학습 공백 메우기 e교육상품 불티
오쇼핑, 2월 교육 상품 주문 170%↑
LGU+ '누리교실' 서비스 전면 개편

SK브로드밴드의 B tv '홈스쿨링 특별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IPTV 서비스 기업들이 홈스쿨링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제공 | SK브로드밴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학원까지 휴원하면서, 집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홈스쿨링'이 주목받고 있다.

G마켓이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전자책과 e교육 상품 판매 신장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04%, 181% 늘었다. CJ ENM 오쇼핑부문도 2월 한달 동안 유아동 도서와 교재·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교육 상품 주문량이 1월보다 170% 증가했다. 가정에서 학습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베이코리아는 이런 추세를 반영해 간편결제 '스마일페이'를 통해 15일까지 서점 브랜드 '교보핫트랙스', '알라딘' 등 제휴처와 함께 캐시백 이벤트를 벌인다. 또 31일까지 외국어 말하기 평가 시험 '오픽'에서 스마일페이로 결제하면 2000원 즉시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CJ ENM 오쇼핑부문도 CJ몰에 '우리집 홈스쿨링' 기획전을 마련했다.

IPTV 서비스 기업들도 홈스쿨링 콘텐츠 강화에 나섰다.

LG유플러스는 유아를 위한 IPTV 플랫폼 'U+tv 아이들나라'에서 제공하는 '누리교실' 서비스를 5일 전면 개편했다. 누리교실은 만 3~5세 아동 대상 표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반영한 서비스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누리과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유아교육 전문가와 함께 누리교실을 바꿨다. 신체운동·건강과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5개 영역에서 추천 콘텐츠 600건을 제공한다.

SK브로드밴드는 B tv에 '홈스쿨링 특별관'을 긴급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EBS와 한솔교육 등이 제작한 초등학생을 위한 필독도서 베스트와 미취학 아동을 위한 한글 떼기, 수학 떼기, 알파벳 정복, 안전교육 등 52개 타이틀로 구성한 1000여 편의 주문형비디오(VOD)를 무료 제공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청도 미나리·남해 새조개 할인판매…유통업계, 농·어민 돕는다

소비촉진 행사 통해 상품 판로 지원
킴스클럽·신세계百·이마트 동참

유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돕기에 나섰다.

이랜드리테일의 킴스클럽은 경북 청도군 한재미나리 재배농가의 판로 확보를 돕는다. 한재미나리는 청도군 400여 개 지역 농가에서 연 2000t 넘게 생산하는 대표 특산물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방문객과 택배주문이 감소해 농가의 어려움이 늘고 있다. 이에 킴스클럽은 17일까지 산지 직송 한재미나리를 산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한다. 정자성 이랜드리테일 본부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가의 고품질 농산물을 고객에게 발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농가가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신세계그룹은 어민들을 위한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등 주요 해외 수출길이 막혔고 국내 수산물의 소비도 줄었기 때문이다. 신세계백화점은 8일까지 수산코너에서 국내 우수 수산물을 최대 30%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 제주산 대갈치, 완도 활전복, 남해산 새조개 등이 대표 상품이다.

이마트도 코로나19로 참치 수출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참치 어가를 돕기 위해 11일까지 '반값 참치회' 행사를 연다. 눈다랑어의 뱃살과 속살로 구성한 모둠 참치회를 역대 최대 물량인 35t이나 마련했다.

최원준 신세계백화점 식품담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어민들의 고충을 덜고자 행사를 기획했다"며 "우수 상품의 판로 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이마트의 반값 참치회 행사(위)와 경북 청도군 한재미나리를 소개하고 있는 농민. 사진제공 | 이마트·이랜드리테일

SKT, 대리점·협력사 위해 1130억 규모 상생안 마련

인센티브·공사 대금 등 조기 지급

SK텔레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파트너를 위해 113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전국 750여 개 대리점을 위해 3월 말 지급 예정 인센티브 중 일부인 350억 원을 4일 조기 지급했다. 또 유통망에 운영비 40억 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가 큰 대구와 경북 지역 대리점에는 휴대전화 매입 대금 결제 기한을 1개월 연장(400억 원 규모)하고, 매장 운영비 10억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외부 협력사 대상 지원 방안도 준비했다. 140여 개 네트워크 인프라 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3월에서 6월까지의 공사 대금 중 일부를 3월 중 조기 지급한다. 230억 원 규모로, 이 중 약 60억 원이 대구와 경북, 부산 지역 업체들에 지급된다. 또 네트워크 유지와 보수를 담당하는 중소 협력사들도 다음달 중 받게 될 용역 대금 100억 원을 3월 중 미리 지급받는다. 김명근기자

발열 확인만 3번…공항·항공사 코로나19 방역 강화

인천공항 터미널 출입구부터 체크

공항과 항공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망을 한층 강화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인천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3단계 방역을 5일 시범도입한다고 밝혔다. 본격운영은 9일 오전 9시부터 실시한다.

5일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객은 터미널 진입·출발층·탑승게이트 등 3단계에 거쳐 발열체크를 받아야 한다. 먼저 공항터미널 출입구에서 1차 발열체크를 실시해 37.5도 이상이면 공항 내 검역조사실에서 기초역학조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이어 출발층에서 보안구역 전에 다시 발열체크를 실시해 37.5도 이상이고, 상대국 요청(발열자 입국제한)이 있는 노선이면 항공사에서 발권취소를 받도록 안내한다. 탑승게이트에서도 상대국 요청이 있는 노선은 항공사가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이때 발열이 확인되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와 별도로 5일부터 인천발 전 노선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한다. 탑승구 앞에서 열화상 카메라 및 휴대용 체온계로 모든 탑승객의 발열 여부를 확인해 37.5도가 넘으면 탑승을 거부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하나님의 교회, 마스크 2만 매 긴급지원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국내 마스크 수급이 난항을 겪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난국을 헤쳐 나가고자 이웃을 돕는 기부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이하 하나님의 교회)는 4일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원하며 보건용 마스크(KF94) 2만 매를 전달했다.

표기상 하나님의 교회 목사는 "코로나19가 빠르게 번지는 데다 마스크 구매까지 어려워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성도들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대구시 코로나19 확진자는 4000명을 넘어섰다. 부족한 의료진에 마스크, 방호용품마저 충분하지 못해 치료 및 확산방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전달한 마스크는 대구시청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밤낮없이 고군분투 중인 의료진과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국내외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온 하나님의 교회는 대구 곳곳에서도 다양한 봉사로 사랑을 전하고 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때에는 유가족들을 위한 무료급식 자원봉사를 55일 동안 실시했으며, 이해 여름에 개최된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연 인원 9만 명이 서포터즈를 자원해 176개 국 선수단을 응원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 175개 국, 7500여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한 봉사활동은 1만 9000여 건, 132만 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4일,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대구 의료진과 시민들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KF94) 2만 매를 전달했다. 표기상 하나님의 교회 목사(왼쪽 두 번째)와 박인주 대구시청 복지정책관실 팀장(가운데). 사진제공 |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